

## 2017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7.4.28(금) 14:00~15:00

### ■ 주요 회의 내용

#### ▲ 보도의 정확성, 심층성 제고해야

- 대선을 앞두고, 현안이 많아 기사가 넘치는 상황에서 '자폐성 장애'와 같은 어렵고 소외받는 분야를 다른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조명한 것은 좋아 보임. 다만, 4. 2. 푸른등켜기 운동을 보도하면서 푸른색이 '자폐성 장애인'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단정한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였음. 전문가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김용직 위원)
- 마찬가지로 정확한 보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음. 발달장애를 조현병과 같은 범주로 오해하게 하는 내용은 그 예임(김용직 위원)
- 발달장애인과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를 보도하면서, 원인 분석과 예방 등 본질적인 대처 방안보다, 처벌 강화론이 해결책인양 보도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음(김용직 위원)

#### ▲ 여론조사 및 선거 프로그램 제언

- 대선방송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다고 느낌. 하지만 여론조사의 경우 지나치게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박동민 위원)
- 5월 9일 19대 대선방송에서 연합뉴스TV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키길 바람. 시각적인 현란함으로는 지상파를 당할 수 없으며 다른 방송사에서 안 하는 걸 시도해보면 좋음.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전국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측근), 그리고 유권자(지지자와 반대편 지지자의 실시간 반응을 클로즈업으로 밀착 현장중계하면 어떨까함?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유명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의 실시간 반응을 중계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음(주철환 위원)
- 대선보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 시민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점이 아쉬움. 주로 후보와 그 주변 사람의 동정으로 뉴스가 짜여지는데 지난 가을 시민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정치인 중심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음, 뉴스에서 그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카메라는 유권자에 더 비추는 노력이 필요함(이재경 위원)

### ▲ 프로그램 기획 등 제언

- 장애인의 날에 맞춘 장애인 관련 기사내용에서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좀 더 넓혀서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정현주 위원)
- 5월은 가정의 달로 관련 프로그램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성의 가사참여를 비롯해 노동시간 감축 등 가정을 근본부터 회복하는 방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정현주 위원)
- '거두절미' 프로그램은 세간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대선 관련 주제를 밀도 있게 다룸으로서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됨. 앞으로 구성을 조금 더 간결하고 스피디하게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함(김상선 위원)

### ▲ 진행자, 자료화면, 자막 개선 고민 필요

-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에는 연합뉴스TV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그 이미지가 호감도 있는 진행자라면, 그 진행자를 더 부각시킬 전략을 강구하고 실행에 즉각 옮기는 게 좋겠음(주철환 위원)
- 도표가 자료화면으로 사용될 때 가능한 한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음. 도표는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할수록 시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박동민 위원)
- 자막에 화폐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간혹 있으니 시정 바람. 내용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4/21 대법, "라응찬, 전 달받은 변호사비 3억(원) 안 갚아도 된다")(신현택 부위원장)
-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함선이나 무기체계 등이 뉴스에 많이 등장함. 연합뉴스TV는 많은 경우 자료화면을 사용하며, 외신을 전하고 있는데, 자막으로 그 화면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찍은 화면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항모의 기동모습이 나올 때, 시청자는 현재 상황이라 착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이재경 위원)
- 뉴스전문채널의 경우 자막 비중이 매우 큰데 연합뉴스TV 자막 색상인 주황색이 예쁘긴 하지만 조금 멀리서 보기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있으니 검토 바람. 지금도 자막에 가끔 오타가 보이는데, 좀 더 주의를 했으면 함(박동민 위원)
- 자막에서 한자를 병기하면 좀 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한글 옆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해주면 방송의 품격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박동민 위원)

### ▲ 긍정적 평가 및 기타 의견

- '정책이나 공약 검증은 없고 상대방 흠집내기 식의 스탠딩 방식의 TV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보도하는 한편 '유력주자 중심으로 토론의 밀도를 높이는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사료됨(김상선 위원)

- 대선을 앞두고 관련 보도가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북한군 창건 일(4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 및 주변국의 동향을 매시간 심도 있게 다룬 것은 안보 불감증 수준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뉴스 편성이었던 것으로 사료됨(김상선 위원)
  - 19일, 23일 대선주자 토론회 후에 평가하는 패널 토론이 있었는데 연합뉴스TV에서는 선대위 대변인 등이 출연해 타방송에서 보지 못한 비직업적인 출연자가 나와 좋았음(정현주 위원)
  - 전체적으로 연합뉴스TV 보도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좋아졌다고 느낌. 특히 이제는 스탠드업을 보여주는 기자 빈도가 크게 늘었음. 텔레비전 뉴스의 기본을 갖추는 추세로 보임(이재경 위원)
  - 대선 국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TV가 대선에만 '올인'하지 않고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상황이라든지,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관계라든지 등을 시의적절하게 보도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박정숙 위원)
  - 최근 자막이 예전에 비해 복잡함이 많이 사라진 느낌. 또한 화면의 기본색상이 주황인데 자막이 눈에 띄게 예쁘게 빠졌음(박정숙 위원)
  - 대선 뉴스에서 타 매체에서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연합뉴스TV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균형 잡혀 보기 좋음(박정숙 위원)
  - 밤에 방송되는 뉴스리뷰 중 섹션 파트에서 음악과 사진을 함께 보여주는 코너가 있는데 시원한 화면과 독특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 수준 있어 보임. 다만 독특하게 보이려다 보니 때로 강한 비트의 음악을 사용해 때로 앵커의 소리가 묻히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했으면 함(박정숙 위원)
- . (끝)